

#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16개월만에 2만명 돌파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이 단순 구직 준비를 넘어 청년들의 경제관념, 정서안정, 지역사회 연결 등 종합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취업 및 일상 회복 지원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년구직 지원 통합플랫폼인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누적 참여자가 개소 1년4개월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2024년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지원을 위해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와 '상무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상무센터는 2024년 5월 개소해 올해 8월 말 기준 5950명이, 동명센터는 2024년 4월 개소해 올해 8월 말 기준 1만5225명이 각각 참여했다. 특히 두 센터는 총 1700여회에 걸친 프로그램이 진행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은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 ▲맞춤형 종합상담 ▲진로설계를 위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상회복 프로그램 ▲청년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구직 지원 거점 센터다.

특히 초기상담과 멘토링, 취업위임업, 경력(재)설계, 창업·창직, 일상회복 지원 등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수 이후에는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해 최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호응이 큰 프로그램은 '경제·일상·연결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동안(8월 말 기준) 3188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업준비를 넘어 청년들의 경제관념, 정서안정, 지역사회 연결 등 종합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 임대차 이해, 기초 금융교육 등 경제이론 습득에 도움을 줄



시, 지난해 4월 동명·상무센터 문 열어 1700여 프로그램 운영  
진로 설계·취업 위임업·정책 연계 등 청년성장 프로젝트 진행  
경제·정서·지역사회 연결 등 종합적 사회적응 도와... 연중 무료

뿐만 아니라 정서안정과 신체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요가·명상, 바른자세 운동, 배드민턴, 클라이밍 프로그램과,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문화예술 체험, 지역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 면접, 현장자 멘토링, 경력재설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도와주는 '취업위임업, 직무역량업' 프로그램도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취업 준비 중인 박모 씨(29세)는 "취업 준비는 게 혼자서 하기엔 어렵고 모르는 게 많지만,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에서 면접 피드백, 시뮬레이션,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소서, 면접 등은

미리 준비해야 기회가 올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성격유형 검사, 기질검사, 자신감 회복 스피치 등 자기이해 프로그램도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와 취업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8월 말 기준) 총 1875명이 다양한 청년정책과 연계해 활동했으며, 237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광주청년일일경험드림 프로그램에 564명이 연계되는 등 지역 내 다른 청년정책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43명), 미래내일 일경험(74명) 등 중앙정부 정책 연계도 활발하

다. 취업에 성공한 김모씨(27세)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체계적인 면접 준비와 자신감을 키운 것이다"며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1분 자기소개 공식과 필수 질문 리스트는 면접 준비 과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해줬고 체계적인 면접 준비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프로그램은 연중 무료로 상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또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각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이 단순한 취업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종합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구직 역량을 키워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필 기자



## 광주 K-뷰티, 방송으로 전국 소비자 만난다 15개 뷰티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 디지털전환 경쟁력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지역 내 뷰티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해 '광주 뷰티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9월17일부터 10월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지역 뷰티기업들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노이숍 ▲디자인 퍼포 ▲뮤즈542 ▲미나페이 ▲뷰티슬립 ▲알제이벤처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강정 ▲제이에스아이컴퍼니(주) ▲썬노아코스메틱 ▲썬라피네제이 ▲썬메공뷰티아카데미 ▲썬태봉 ▲썬하경코스메틱 ▲페이스홀릭 ▲퓨어밸리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방송에서는 파우더형 앰플, 클렌저와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라, 모델링팩, 디아이와이(DIY) 향수 등 지역 뷰티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제품이 소개된다. 주요 방송 플랫폼은 네이버 쇼 핑라이브, 그립, 쿠팡 등이다. 방송 중에는 무료배송, 구매자 추천 이벤트(커피 쿠폰 제공, 20-50% 할인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방송 전 상세 페이지, 섬네일, 소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리브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이 202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획부터 쇼호스트 섭외, 촬영, 송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축적해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7-8월 두달간 1차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으며, 15개 기업의 29개 상품을 소개했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지역 뷰티기업들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필 기자

## 전남도,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10월31일까지 소득하위 90% 도민 대상... 11월까지 사용가능

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원하는 도민은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민원인 혼잡도가 낮은 일부 시군 읍면동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차 지급 시기에 진행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지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진행한 대상자는 별도 사전신청 없이 방문·접수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

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 전남 귀농·귀어·귀촌 3년 연속 감소... 80% "나홀로 산다"

전남지역 귀농·귀어·귀촌 가구가 모두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전북·전남·제주귀농·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남 귀농·귀촌 가구는 1516가구로 전년 대비 14.1%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2020년 2347가구에서 2021년 2564가구로 증가했으나 2022년 1966가구, 2023년 1782가구에서 지난해 1516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작년 전남 귀농·귀촌 가구원 수는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으며 1인 가구 구성비는 82.8%였다. 귀농인 역시 지난 2022년 1987명, 2023년 1803명, 2024년 153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남 귀농인은 68.6%, 시도 간 이동은 81.4%였다.

지난 2024년 전남 귀어·귀촌은 194가구로 전년에 비해 무려 30.5% 감소했다. 귀어·귀촌 역시 2022년 297가구에서 2023년 279가구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전남 귀어·귀촌 1인 가구 구성비는 78.4%로 나타났다. 귀어인도 지난 2024년 203명으로 전년에 비해 29.5% 감소했다. 2024년 전남 귀촌·귀촌 가구는 2만7635가구로 전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귀촌 역시 2022년 2만9864가구, 2023년 2만8385가구 등 매년 감소했다. 귀촌·귀촌 가구원 수는 1.22명, 1인 가구 구성비는 83.7%로 집계됐다. /우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